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10호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0, 2021, pp. 189-20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0.189

JLCCI
pISSN 1598-2106
eISSN 2671-776X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변화 경험: H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 이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장명희[1] · 정소미[2] · 조성범[3]
[1]한성대학교 교수, [2]동양대학교 조교수, [3]세명대학교 조교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변화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서울소재 4년제 H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교과 교육과정 우수 이수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 3개 영역, 6개 범주, 10개의 하위범주가 최종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 능력 향상과 긍정적 학습 경험이 도출되었다. 둘째, 관계적 측면에서 대인관계 확장, 유의미한 관계 형성이 도출되었다. 셋째, 자기성찰 측면에서 자기 이해, 정서 및 성격 변화가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개선과 운영을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대학생, 비교과 교육과정, 경험, 변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논문접수: 2021년 2월 3일, **논문심사:** 2021년 4월 20일, **게재승인:** 2021년 5월 3일
Corresponding to 정소미, angelica66@hanmail.net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 지원과제임

Ⅰ. 서론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로서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세 가지 고유 기능을 갖고 있다(Astin & Antonio, 2012).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우리나라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시에 성과(performance) 기반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학 입학생의 수 역시 줄어들고 있고, 졸업생은 노동시장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배상훈 외, 2018; 이정미, 이길재, 강지연, 2019).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학들은 학부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교육혁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변기용, 이석열, 배상훈, 2017). 즉, 대학 본령과 대학교육의 본질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요컨대,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학부교육 혁신을 향한 여러 대학들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국가 정책이 바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이하 ACE 사업)'이었다(배상훈 외, 2018). 2011년부터 시행된 ACE 사업을 계기로 학부교육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학생중심 대학경영이 화두가 되었다. 대학들은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 제도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박차를 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교과 교육과정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점 부여 방식과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만큼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 참여와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비교과 교육과정이 강조된 것이다. 이는 대학이 스스로 세운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따

Copyright © 2021.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All rights reserved.

라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박창남, 정원희, 2017).

ACE 사업 보고서를 근거로 대학의 핵심 추진 사업 동향을 분석한 장상필, 김지인(2015)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많은 대학이 건학 이념에 따라 설정한 인재상을 교육 목표를 상정하고 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D 대학은 교육목표인 '참사랑'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다(최헌철, 김수동, 2019). 구체적으로 전공 워밍업 프로그램, 학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전공 교과목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K 대학은 대학의 인재상과 이에 따라 설계한 핵심역량이 학부교육에 반영되도록 교과-비교과 중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재편하였다(한안나, 2017). 예컨대, 인성, 창의성, 공동체성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핵심역량의 내용을 모든 교과목과 비교과 활동에 비율 형태로 부여하였다. 또한 교과목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핵심역량을 지수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 소재 H 대학의 경우, 비교과 교육과정을 졸업요건으로 제도화하였다. 이 대학은 2016학년도부터 졸업이수 학점을 축소하면서 교과와 연계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졸업 시 비교과 마일리지 취득을 의무화하였다. 즉, 비교과 활동은 신입생부터 취업을 앞둔 졸업생까지 전 범위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Kuh(1995)는 비교과 활동 참여가 비판적 사고, 인지적 유연성, 반성적 사고 능력 개발, 지식의 습득 및 적용, 인도주의, 타인에 대한 관심, 자신감 및 자아정체성 확립, 대인관계 개발 등을 함양하는 성과가 있다고 하였다. 국내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비교과 활동의 교육적 성취는 대학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각종 경진대회, 공모전, 튜터링, 멘토링 등 대학에서 확대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은 학점 향상, 높은 학업 성취, 교과과정의 이수, 낮은 중도탈락 및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김혜진, 2016; 황순희, 2019). 김경진과 문성호(2019)의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들은 독서활동 및 그에 따른 정서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기성찰에 이르게 되고 이는 창의적인 역량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적 성과뿐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측면에서도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양정모(2019)는 대학생의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동균(2019)은 전공수업에 적응이 어렵고 회의적인 사고에 빠진 학생들이 종이탑 만들기, 사진 찍기, 천연비누 만들기, 퍼즐 맞추기 등의 비교과 활동 경험으로 그동안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견하여 자기성장 및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활동 경험은 대인관계 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역량이 증진되었다(백상현, 2020). 동아리 프로그램(김옥분, 2018), 인턴십 활동 프로그램(박수미, 고장완, 2014) 등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캠퍼스 내외의 일 경험 등이 대인관계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종합하면,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은 학업 성취, 창의성 함양 등 인지적 차원의 성과뿐 아니라, 대인관계, 자기성찰 기회 등의 정서적 영역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대학이 고유의 발전 및 혁신 전략에 맞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고,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차별화된 비교과 활동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촉진하는 활동들은 실제로 재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김정민, 2018; 이명주, 구효진, 김정남, 2019).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별 프로그램 단위에서

비교과 활동의 효과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던 반면, 제도(institution) 차원에서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경로에 따라 성장했는지를 밝히는 연구들은 미비하다. 특히, 많은 연구들은 양적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학습자 측면에서의 경험과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김정민(2018)은 혼합연구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과정 및 비교과 졸업인증 인식을 학생 관점에 살펴보고자 했으나, 그 내용은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단순한 인식에 그쳤다. 즉, 비교과 활동을 통한 경험과 그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대학의 비전과 교육철학에 따라 대학 경험(college experiences)을 축적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맡겨진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의도한 교육목적에 따라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임승주, 박은영, 2013). 교육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에 따르면, 학생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추하고 성찰(reflection)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하였다(Dewey, 1916). 이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정말로 효과적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경험의 행위자인 학생들의 성찰과 이에 대한 증언(testimony)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의 대학 경험에 대한 변화 탐색은 학교에서 제시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여부뿐 아니라, 학생 차원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의 진정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 차원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과를 학생의 변화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학생의 변화 경험을 인지적 차원, 대인관계적 차원, 자기성찰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구체적인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두고 있는 H대학교를 연구 사례로 삼았고, H대학교의 대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학생의 변화 경험 측면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의 다양한 성과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사례(ideal-typical case)'이기 때문이다(Kinzie et al., 2007).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한 대학생들은 인지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둘째, 비교과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한 대학생들은 관계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셋째, 비교과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한 대학생들은 자기성찰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에 따라 정책적으로 시행된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 경험과 성과를 변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중소형 사립 H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주목하였다. H대학교는 학생들에게 교과 수업 외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졸업이수 학점을 축소하고 비교과 활동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졸업 시 취득을 의무화하였다. H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800점 이상의 비교과 포인트[1]를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적인 맥락에서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과정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H대학교 학생들을 의도적

1) 1시간 비교과 활동을 5포인트로 상정하였음

으로 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Merriam, 1998). 특히, 학습공동체 활동, 통합적 학습활동, 학생회 및 서포터즈, 실험 및 실습 활동(hands-on experience) 등 능동적 참여(student engagement)를 기반으로 하며 대학의 교육이념이 충분히 반영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을 목적 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고려한 H대학교의 비교과 교육과정 대표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이하 'FGI')는 비공식적인 토의 방식의 인터뷰로 연구자가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특정 집단의 인식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Frey & Fontana, 1991; Morgan, 1997). 다만, 본 연구의 주제인 대학생이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변화 경험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학생 집단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들은 FGI가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하였다. 연구의 주요 질문을 도출하기 위하여 FGI로 진행된 연구물들을 검토하여 연구자 3인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작성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대상 모집을 위하여 각 단과대학별로 대학의 대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선을 통해 연구 안내하였다. FGI의 적정 인원이 6명에서 10명 내외이므로(Patton, 1990), 각 단과대학별로 4~6명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의 참여자는 H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대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하고 있는 학생 26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2.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 H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에 우수하게 이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연구에 팔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시 연구 내용과 연구 질문지 등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서면으로 연구 참여와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2019년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약 한달 간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구조화하여 연구자 2인이 번갈아가며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시작 시 연구 목적, 소요 시간, 녹음 동의 및 비밀유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후 대학에서의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경험한 변화에 대해 잠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의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 그만둘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함께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는 녹음과 함께 인터뷰 중 인터뷰 내용을 간략히 메모를 하였으며, 녹음한 인터뷰는 전사 축어록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 ~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3. 자료분석 및 타당성 검증

연구자 3인은 모두 교육학 박사로 4년제 대학의 교

<표 1> H대학교의 대표 비교과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	내용	비고
프로젝트	다학제 팀 기반 프로젝트 학습	HSP 등(High Success Project)
튜터링	학습 내용을 알고 있는 튜터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튜티를 직접 가르치며 배우는 학습	한성 튜터링, 전공 튜터링, 글로벌 튜터링 등
학습	학습전문가의 학습방법, 발표능력향상, 시간관리 등 학습 조력	학습법 워크숍, 학습컨설팅, Jump up 등
스터디 그룹	소그룹 단위의 학습 공동체 형성	낙산스터디그룹
리더십	자신의 강점 및 성장잠재력에 대한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 함양	데일 카네기, 앰버서더
글쓰기	대학 학습의 기본인 글쓰기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글쓰기
상담	심리·정서와 관련된 전문상담자의 지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단과대학	참여자	전공	학년	성별	주요 참여 프로그램
인문학부	학생1	국어국문	4	여자	그룹 스피킹
	학생2	국어국문	4	여자	리더십캠프
	학생3	문헌정보	3	여자	독서 클럽
	학생4	영어영문	3	여자	다학제 팀 기반 프로젝트
	학생5	영어영문	3	여자	학생회 활동
	학생6	국어국문	3	여자	글로벌 튜터링
예술학부	학생1	무용	4	여자	학습심리 상담
	학생2	회화	4	여자	프론티어
	학생3	무용	3	여자	글쓰기 상담 활동
	학생4	무용	3	남자	공연 프로젝트
사회과학대학	학생1	경영	4	남자	학습 튜터링
	학생2	무역	4	여자	다학제 팀 기반 프로젝트
	학생3	행정	4	여자	다학제 팀 기반 프로젝트
	학생4	무역	4	여자	영어 캠프
	학생5	국제통상	3	여자	해외 봉사
	학생6	경영	4	남자	앰버서더
디자인대학	학생1	인테리어디자인	4	여자	도서관 봉사활동
	학생2	광고디자인	3	여자	학습 튜터링, 학생회
	학생3	브랜드디자인	3	여자	교내 언론사 활동
	학생4	제품디자인	3	여자	글로벌 튜터링
공과대학	학생1	컴퓨터공학	4	여자	취업멘토링
	학생2	컴퓨터공학	4	여자	학습심리 상담
	학생3	사물인터넷	3	여자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학생4	사이버보안	3	여자	동아리활동
	학생5	IT응용시스템	4	남자	다학제 팀 기반 프로젝트
	학생6	컴퓨터공학	4	남자	전공튜터링
총				26명	

수로 재직 중이며 질적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다수 있다. 감수를 위하여 교육학 박사 1인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내용이 전사된 축어록과 인터뷰 중 기록한 메모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전사 축어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자 1명이 원자료에서 의미자료를 1차적으로 추출하였다. 1차 추출된 의미자료를 바탕으로 1차 분석모임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분석시 주의할 사항과 분석 절차를 합의하고, 각자 추출해온 의미자료를 교차 확인하였다. 1차 분석모임의 교차분석에 내용을 바탕으로 2차 모임에서는 의미자료와 명명화 결과를 검토하고 합의해나갔다.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분석자료를 각자 재검토 및 수정하고 하나의 결과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끝낸 후 분석 결과를 외부 감수자를 통해 감수 받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물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선입견 배제 및 질적 분석 수행과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Hoyt와 Bhati(2007)가 제안한 주요 확인사항, 즉 연구 초점, 연구 환경, 연구자 역할, 연구 결과 제시 항목들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초점 확인을 위하여 유선 및 대면을 활용하여 2회의 접촉을 하였으며, 면접시간은 그룹별로 약 1시간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연스러운 연구 환경 조성하여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자 이외에 1인이 배석하여 관찰하였다. 셋째,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자 3인이 교차로 분석결과를 검토하였으며, 외부 감수자에게 감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넷째, 연구 참여자의 발화 분석을 연구에 포함하는데 있어서 쏠림이 있지 않도록 연구자 2인이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비교과 우수 이수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변화에 대해 탐색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3개 영역, 6개 범주, 1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은 인지적 측면, 관계적 측면, 자기성찰 측면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인지적 측면 영역에서는 학습 능력 향상과 긍정적 학습 경험의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관계적 측면 영역에서는 대인관계 확장, 유의미한 관계 형성의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기성찰 측면에서는 자기 이해, 정서 및 성격 변화의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세부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1. 인지적 측면

인지적 측면 영역에서는 학습 능력 향상, 긍정적 학습 경험 등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가. 학습 능력 향상

인지적 측면 영역의 학습 능력 향상 범주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함양, 사고력 확장의 2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함양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학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튜터가 되어 튜티의 학습을 돕는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튜터링을 하면서 이전에는 ‘나만 알면 된다’라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튜티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어 나도 혼자서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공과대학 6번)

> “튜터링을 할 때 처음에 저 혼자 할 때 모르는 거 찾아보고, 그 친구의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하니까. 저도 모르는 기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튜터링 전에 예습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프로그램 능력이 올랐어요.” (디자인대학 2번)

2) 사고력 확장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활동들을 통해 사고력이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학제 기반의 팀 프로젝트 학습,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HSP(High Success Program: 다학제 팀 기반 프로젝트 학습)를 처음 할 때는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사과대는 캠페인밖에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답답했어요. 두 번째로 참여할 때는 공대와 캠페인을 섞어서 직접 기계를 만들어서 참여했어요.

<표 3>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의 활동 경험 및 변화 유목화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인지적 측면	학습 능력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함양
		사고력 확장
	긍정적 학습 경험	성취감 경험
		자신감 증진 경험
관계적 측면	대인관계 확장	후배와의 관계 형성 경험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경험
	유의미한 관계 형성	삶의 중요한 타인을 만나는 경험
자기성찰 측면	자기 이해	나에 대한 이해 확장 경험
	정서 및 성격 변화	마음가짐의 변화 경험
		성격의 변화 경험

제 사고력을 넓히는 계기가 됐어요.” (사회과학대학 2번)

“글쓰기에 많이 도움 되고 과제 할 때도 계속 생각이 나서 더 잘했어요. 예를 들어, 글쓰기 방법이라던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하고, 감상문은 어떤 식으로 써야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예술학부 3번)

나. 긍정적 학습 경험

인지적 측면 영역의 긍정적 학습 경험 범주에서는 성취감 경험, 자신감 증진 경험의 2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성취감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터 완성, 프로젝트 등 결과물이 명확한 활동에 참여했을 때 성취감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일단 제가 신문사 활동과 관련된 포스터를 만들거나 카툰을 만들면서 아웃풋을 내면서 좋았고 그거 때문에 비교과를 많이 모아서 좋았어요.” (디자인대학 3번)

“저는 HSP(High Success Program: 다학제 팀 기반 프로젝트 학습)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처음하고 한번 더 참여를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획, 구상 등을 전부 팀들이 한다는 게 성취감이 있었고” (사회과학대학, 학생 2번)

2) 자신감 증진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단회 참여도 효과가 있지만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이 증진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로그램마다 추구하는 성향이 다른데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니 스킬이 늘었어요. 발표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여서 결과적으로 내 학교생활에 자신감도 얻고, 인정도 받아서 자신감을 얻는 거 같아요.” (공과대학 3번)

“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걸 해야할지 잘 몰랐는데, 딱히 특정 분야에 관심을 두지않고, 스터디 그룹 여러개를 참여했었는데, 내가 이 분야에는 잘 몰랐었고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을 해보니깐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겼거나, 내가 이 분야에서 잘 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인문학부, 학생 4번)

2. 관계적 측면

관계적 측면 영역에서는 대인관계 확장, 유의미한 관계 형성 등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가. 대인관계 확장

관계적 측면 영역의 대인관계 확장 범주에서는 후배와의 관계 형성 경험,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경험의 2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후배와의 관계 형성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후배를 만나고 관계 맺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긴밀하게 이렇게 만날 수 밖에 없다보니까 친밀감이 생겼고 보람도 있었어요.” (사회과학대학 1번)

2)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관계 맺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속한 학과 뿐 아니라 다른 학과의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교류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트랙제로 들어왔는데, 과 친구들이랑 소속감도 사라지고 그랬었는데, 과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많아졌고 또 다른 과 친구들이랑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았어요." (인문학부 5번)

"저는 과끼리 생활하는 게 제일 시간도 많이 차지하고 비율이 제일 많은데 학생회, 튜터링,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학과 학생도 많이 알게 되어 좋았고," (디자인대학 3번)

"학교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해외에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인터뷰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저는 유럽, 프랑스랑 독일이랑 이탈리아 다녀왔어요. 같은 팀이 3명인데, 제가 회화과고 나머지는 문헌정보에요. 셋이서 공통분모가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문화마을에 대해 사업을 차려보자 해서 한국에는 한옥마을처럼 유럽에는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나 찾아봤어요." (예술대학부, 학생 2번)

나. 유의미한 관계 형성

관계적 측면 영역의 유의미한 관계 형성 범주에서는 삶의 중요한 타인을 만나는 경험의 1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삶의 중요한 타인을 만나는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삶의 중요한 타인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는 학생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멘토와 멘티가 되는 관계 형성의 경험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뭘 해야하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하지? 알바를 해야하나? 이런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1학년이란 시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들 뭐하실것이냐고, 학생회 선배들한테 특히 졸업하면 뭐하실거예요? 어떤것 때문에 이 과에 들어왔고 나중에 뭐하실거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취업해야지.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때 진짜 막연할 때 문화기행단을 가게 되면서 군인에 대해서 잘 몰랐고 남자만 가는줄 알았던 군대에 대해서 인생 멘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인문학부 3번)

3. 자기성찰 측면

자기성찰 측면 영역에서는 자기 이해, 정서 및 성격 변화 등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가. 자기 이해

자기성찰 측면 영역의 자기 이해 범주에서는 나에 대한 이해 확장 경험의 1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나에 대한 이해 확장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스터디, 멘토링 활동 등 타인과 교류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좋았던 게 친구들 9명 정도 되었는데, 학기 초다 보니깐 이게 진짜 전공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자체가나 자신에 대해 살펴보고 적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인문학부 1번)

"스터디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하면서 1학년 들어와서 트랙제로 들어와서 어떤 걸 해야할지 잘 몰랐는데,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딱히 특정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러 개를 참여했었는데, 내가 이 분야에는 잘 몰랐었고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을 해보니깐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겼거나, 내가 이 분야에서 잘 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비교과 포인트 활동들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기간이 긴 것들을 하다 보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인문학부 4번)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저도 4번 친구처럼 제가 이쪽에 맞는구나를 느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외부활동 멘토링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이 활동들을 정말 모든 자기 속에서의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인문학부 6번)

"저는 튜터링 프로그램이랑 데일 카네기 활동을 하면서 제 적성에 맞는 다는 것을 일단 알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이 길로 가도 되겠다는 확신이 거기서부터 서서 되게 적성도 맞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튜티를 가르치면서 그런 전문성도 체계적으로 바뀌었달까. 그런점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로 자기계발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찾아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 튜터링 프로그램입니다." (인문학부 2번)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성향과 장점, 단점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아가는 중이에요. (중략)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부족한 부분과 이를 채울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꼭 검사가 아니라 활동이어도 나를 깨닫는 상황들이 오는 거 같아요." (공과대학 4번)

나. 정서 및 성격 변화

자기성찰 측면 영역의 정서 및 성격 변화 범주에서는 마음가짐의 변화 경험, 성격의 변화 경험의 2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마음가짐의 변화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마음가짐의 변화를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어요. 조금 개인적인 내용인데, 원래 맨날 돈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특강을 듣고 나서 아 ..진짜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춰서 이러고 있는 거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술학부 4번)

"마음이 정리가 된거 같아요. 그때는 상담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내려놓게 되니까 괜찮아졌어요." (예술학부 1번)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함께 생활하는 것에 원래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앰버서더에서 참여하면서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많이 없어졌고 편견이 사라졌어요." (사회과학대학 6번)

2) 성격의 변화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성격의 변화를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프로젝트, 리더십 프로그램 등의 활동들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다양한 비교과 포인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말이 적은데, 근데 비

교과 활동을 많이 하고 홍보대사 활동도 하면서 경험이 많아져서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졌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얻고 저 자체도 개발이 되고 경험이 많아진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문학부 6번)

"팀을 꾸려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팀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발표하는 것들을 잘하는 성격이 아녔는데 (중략) 열심히 참여한 프로그램들은 한 만큼 잘 발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공과대학 5번)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 수 있게 됐어요. 또한 발표와 리액션 연습을 통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튜터링에서도 튜터로 참여했을 때 다들 조용히 있었는데 먼저 다가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공과대학 1번)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교과 우수 이수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변화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소재 4년제 H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교과 교육과정 우수 이수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과 우수 이수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변화 경험에 대해 탐색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영역, 6개 범주, 10개의 하위범주가 최종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 능력 향상', '긍정적 학습 경험'의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학습 능력 향상'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함양', '사고력 확장'의 내용이 도출되었으며, '긍정적 학습 경험'에서는 '성취감 경험', '자신감 증진 경험'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함양'은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 중 학습 관련 튜터링, 특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진(2016)에서 비교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로 학습전략, 학습몰입 등 학습 능력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Bakoban과 Aljarallah(2015)의 연구에서 학업 성취 향상에 비교과 교육 활동 참여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사고력 확장'이란 학생들이 다른 단과대학 학생과 협업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생각과 배움이 범위가 확장됨을 의미한다. '긍정적 학습 경험'에서 도출된 '성취감 경험', '자신감 증진 경험'은 Massoni(2011)의 연구에서 학습자가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이 증진된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채워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관계적 측면'에서 '대인관계 확장', '유의미한 관계 형성'의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대인관계 확장'에서 '후배와의 관계 형성 경험',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경험'의 내용이 도출되었으며, '유의미한 관계 형성'에서는 '삶의 중요한 타인을 만나는 경험'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과정 활동 경험이 대인관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백상현(202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는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교수와의 교류 등의 활동이 대인관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기성찰 측면'에서 '자기이해'와 '정서 및 성격 변화'의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기 이해'에서 '나에 대한 이해 확장 경험'이 도출되었으며, '정서 및

성격 변화'에서 '마음가짐의 변화 경험', '성격의 변화 경험'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찰 과정이 학생의 자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윤정(2020)의 연구에서 비교과 활동으로서 비평문 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성장을 인식하고 성취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글쓰기, 멘토링 같은 '성찰 지향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리더십 캠프, 타과대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 등과 같은 '관계 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기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비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찰하는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태도 함양, 긍정적 정서 경험 등 정서적 측면의 변화를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대학교육이 교과 교육과정에 무게를 두고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를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정서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학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본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로서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이수를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H대학교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비교과 교육과정이 교과 교육과정의 보완제(complementation)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는 교육과정의 형태, 즉 "Extra-curricular"에서 "Co-curriculum"으로의 인식 전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과를 대학생이 경험한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봤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교육의 수혜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비교과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기초 정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비교과 우수 이수자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경험에 대한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우수 이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수 이수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비교과 교육과정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과 교육과정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참여한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비교과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년은 주로 3, 4학년이었다.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변화 경험을 학년별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FGI, 즉 질적 연구의 형태로 실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대학생의 변화 양상을 수치화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성과 규명 및 개선 정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경진, 문성호 (2019). 대학생의 독서활동과 창의융합역량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5), 391-412.

김옥분 (2018). 학습동아리 교수·학습 방법 적용에 따른 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차이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1), 799-807.

김정민 (2018).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과정 및 비교과졸업인증 인식에 대한 혼합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3), 245-266.

김혜진 (2016). 비교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효과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5), 143-152.

문성동, 엄기수 (2015). 대학에서 비교과영역의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공학회지, 20**(1), 147-160.

박수미, 고장완 (2014). 대학생의 근로경험에 따른 학생 참여와 학습성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3), 149-175.

박창남, 정원희 (2017). 비교과프로그램이 대학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K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1), 39-71.

배상훈, 박인심, 변수연, 이훈병, 한송이, 곽은주, 조성범 (2019).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성과 백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서.

백상현 (2020).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활동 경험이 대인관계 역량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4**(1), 259-282.

변기용, 이석열, 배상훈 (2017).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징과 성공요인: 5개 대학 사례연구. **교육문제연구, 30**(1), 227-260.

송인자, 서성희 (2017). 창의활동을 적용한 비교과프로그램이 대학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5), 187-205.

신혜성 (2017). L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 인식 분석. **교양교육연구, 11**(6), 303-332.

양정모 (2019). 비교과 활동과 대학생활적응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3**(4), 71-93.

이명주, 구효진, 김정남 (2019). M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7**(2), 9-14.

이정미, 이길재, 강지연 (2019). 비교과 교육과정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355-375.

임승주, 박은영 (2013). 사티어 의사소통 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변화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1), 151-162.

조진숙, 전영미 (2019). 대학생의 학습참여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524-534.

차윤정 (2020). 비교과 활동으로서 비평문 쓰기의 교육적 의미: '고전・명저 비평문 저자되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코기토, 90**, 143-172.

최상민 (2016). 독서토론 활동을 통한 대학생의 자기성찰적 인성개발. **대학작문학회 2016년 국제학술대회,** 183-196.

한동균 (2019). 대학생의 문화예술 경험이 창의융합 역량 및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와 융합, 41**(6), 211-234.

현남숙 (2012). '저자와의 대화'부터 '청춘의 서재'까지: 가톨릭대학교 비교과 영역에서의 읽기와 쓰기 활동 사례. **사고와 표현, 5**(1), 63-86.

황순희 (2019). 비교과 교육활동 참여가 학점변화에 미치는 영향-성, 전공, 학년 변인과 비교과 활동유형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3**(4), 11-37.

황순희, 주나영 (2019). 동아리 참가 대학생의 메타인지와 진로적응성 탐색. **교양교육연구, 13**(1), 293-320.

Astin, A. W., & Antonio, A. L. (2012). *Assessment for excellence: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Bakoban, R., & Aljarallah, S. (2015).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ir effect on the student's grade point average: Statistical study.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10*(20), 2737-2744.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Kinzie, J., Magolda, P., Kezar, A., Kuh, G., Hinkle, S., & Whitt, E. (2007). Methodological challenges in multi-investigator multi-institutional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54,* 469-482.

Kuh, G. D. (1995). The other curriculum: Outofclass experiences associated with student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2), 123155.

Massoni, E. (2011). Positive effects of extra curricular activities on students. *ESSAI, 9*(1), 84-87.

Merriam, J.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y-Bass.

ABSTRACT

Change Experience through Extra-Curricular Programs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case of excellent students in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of H University

Myung-Hee Jang[1], So-Mi Jeong[2], Sungbum Cho[3]

[1]Professor, Hansung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Dongyang University, [3]Assistant Professor,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hange through extra-curricular programs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o this e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26 successful candidates in extra-curricular programs at H university in Seoul.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3 areas, 6 categories, and 10 sub-categories were finally draw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in learning ability and positive learning experience were derived from the cognitive perspective. Second, the expa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formation of meaningful relationships were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perspective. Third, self-understanding, changes of emotion and personality were derived from the self-reflection perspective.

Conclusion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bout planning and operation of extra-curricular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were discussed.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extra-curricular programs, experience, change, focus group interview